

인터뷰 이사람에게 듣는다—최민자 교수

필연과 자유의지의 조화로 쌓아올리는 유엔세계평화센터

| 최민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편집부 인터뷰 |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연구에 바쁜 몸으로, 중국 산둥에 거대한 정보고 기념탑을 세우고, 중국-북한-러시아의 접경지 2억평 부지를 확보하여, 이곳에 유엔세계평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최민자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세기가 인류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정치, 문화, 의식개혁에 스스로 참여하는 직접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천부경과 생태정치학을 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번역이나 논리적 분석 및 기술(記述) 차원을 넘어 깊은 내적 체험에서 우러난 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의식의 확대가 외적인 일로 현상화, 구체화되는 힘의 확대로 연결되어진 좋은 사례로 생각되어 인터뷰하였습니다(편집자 주).

유엔세계평화센터 조감도



Committee for UNWPC

미내사: 이제 다가올 시대는 비정부기구(NGOs)의 시대이고, 시민, 국민, 나아가 지구인으로서 전지구적인 각종 위기에 자율적인 직접참여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최민자: 먼저, 인류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보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수의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했던 정보에 대한 통제가 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동시간대에 연동되는 지구촌 차원의 상호의존적인 ‘한마당’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人智)의 발달로 더 이상은 군림하는 대표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표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직 공동주체와 대항자만이 있을 뿐이지요. 고대 동양에서는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은 내성외왕(內聖外王)적 존재로서의 왕에 의해 왕도정치가 구현되는 것으로 보았고, 근세에 이르러서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동서양 모두 지배자가 태생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오늘날 대의정치 하에서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표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수준과 포괄적인 능력의 향상으로 직접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직접참여를 통하여 자기 삶의 적극적 주체가 으로서만이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이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영적 진화[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데 있지요.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는 까닭에 직접참여의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통해 영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미: 자기완성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최 교수님 본인의 삶의 여정도 명상을

위주로 한 삶을 의도했으나, 개인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 그 과정에서 필연과 자유의지 사이의 심대한 갈등을 겪긴 했지만, 의식수련의 장인 내면의 동굴이 세상이라는 동굴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좌선(坐禪)과 행선(行禪), 지행(止行)과 관행(觀行)의 상호보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의식계와 존재계, 본체계와 현상계는 결국 하나이며 양 세계의 자유로운 내왕을 체득할 수 있을 때 더 이상은 오고 감이 없는 여여한 실재를 직시할 수 있겠지요.

미: 최근에 내신 천부경과 생태정치학 책을 보고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것부터 듣고 싶군요.

최: 삶의 과정 자체가 명상이었고, 특별히 어떤 지도를 받았다기보다 어릴 적부터 명상을 좋아했지요. 단전호흡과도 일맥상통하는 심파를 고르는 수련이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고 또 물질일변도의 사고를 하니까 의식계와 존재계, 본체계와 현상계,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90년 초까지만 해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한 채 전화코드조차 뽑고서, 꼭 처리해야 할 학교 일 외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9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학교에 연락을 할 일이 있어서 코드를 꼽는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교보문고에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보는 게 좋을 거라는 내용이었지요. 같은 학회에 있던 그분은 저와 평소에 자주 만나거나 특별히 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스쳐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즉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서 본 책이 한국 상고사였습니다. 책을 쓴 분은 바로 서울대 대 법대 학장을 지내신 최태영 교수님이었어요. 2005년도에 작고하셨지요.

그 책을 읽어보니 제가 모르는 내용이예요. 저는 상고사라는 것이 전부 신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 사실로 쓰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계시는 최 박사님을 찾아뵙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했지요. 그랬더니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어떻게 한 민족 집단의 수천 년 역사가 이렇게 조용히 단절될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속해있는 우리 민족 집단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제 전공이 정치학이라 관련이 없을 듯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치사회인데, 수천 년의 역사를 절단하고 어떻게 정치사를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상고사를 공부하게 된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강의와 연구 외에는 명상만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매주 최태영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인천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 그분이 대중강의를 계속 하셨습니까?

최: 아니요. 집단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사를 받았지요. 그분께서도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분과 같이 외부 강연도 다니고, 상고사에 관한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역사를 왜곡시킨 것도 큰 사건이지만, 해방이 된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그러한 역사를 사실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큰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1989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전처럼 명상에 들어갔었는데 1990년 에 들어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우리 한민족을 규합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한중, 한소 수교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소에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중국과는 1992년 8월에, 그리고 소련과는 1990년 6월에 수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스크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또 그렇게 되도록 되었어요. 제 삶의 과정에서 강한 생각이 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지더군요. 물론 저절로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모스크바로 가서 한인대표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초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저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세계한민족연합 국제학술문화교류 세미나 겸 세계한민족연합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자금을 동원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이 추진되는 방식이에요. 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역할 수 없는 당위성에 압도되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 그 당위성의 느낌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머릿속으로 강하게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생각인 것처럼 너무나 강렬하게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금동원이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등등의 생각은 할 겨를도 없고 가서 초청을 하겠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시는 러시아에 전화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초청장은 전부 공증해 가지고(그때는 초청장에 공증이 필요했어요)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밤을 새워 매일매일 전화를 했지요(그 당시는 신청하고 다시 전화가 와야 통화가 가능해서...). 밤에 신청을 하면 새벽이 되어서 오기도 하니까 매일 밤을 새워 전화를 하고 계획도 만들어 진행해 나갔지요.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시켰는데 결정적으로 통일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경우 수교도 안 되었고, 중·소 사회주의권에서 온 한인대표라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발언을 할지, 논문들이 어떤 내용일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논문 검색을 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수직을 그만

“ 그런데 그 별채 중앙에 엔닌이 모셔져 있고
 장보고 대사의 영정은 한쪽 구석에 객인처럼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고 한국이고를 떠나서, 이것은 새로운 역사왜곡을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두꼴다는 각서까지 썼어요. 그래도 힘들었죠. 그런데 마침 당시 총리로 계시던 분이 제가 영국 유학시절에 주영 대사로 계셨던 분이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읽어보셨던 관계가 있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간곡하게 설명을 드렸지요. 우리 상고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수천 년 역사가 절단된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세계 역사상 이렇게 한 민족 집단의 역사가 절단된 적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역설했지요. 그래서 이번 국제학술문화교류 세미나에서 한국상고사 복원문제와 세계한민족연합 방안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설정하게 된 것인데 전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데도 왜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총리께서는 제가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최태영 교수님에 관해서도 직간접으로 많이 들은 바가 있었지요.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셔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1990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지금의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국제학술문화교류 세미나 겸 세계한민족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산둥 영성에서 부시장 일행이 한국에 왔는데 점심을 같이 하겠느냐는 제의였지요. 하여 식사를 같이 하는데 중국인인 부시장이 무슨 얘기 끝에 한국 사람은 참 역사의식이 없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영성에 장보고 대사가 세운 법화원이 있었는데 당나라 무종 때 불교탄압책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지요. 법화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복원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었던 작년에 한국 유관부처에 법화원을 복원하라고 했더니 관심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덧붙여 일본에 하라고 했더니 즉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1년 4월에 그 1주년 준공기념식이 있다는 얘길하는 거예요.

미: 장보고 대사가 세운 법화원을 왜 일본이 복원을 했지요?

최: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죠. 일본의 구법승(求法僧) 엔닌이란 사람이 당나라에 들어가서 구법승 활동을 할 때 법화원에 머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화원의 객승이었던 셈이지요. 엔닌은 자신의 저서 『입당구법순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 대사의 지대한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의 순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거기에 잠시 체류했던 객승을 위해서도 기꺼이 복원하는데, 하물며 장보고 대사의 해외거점이자 국제성을 띤 주요한 외교적 기관이었던 법화원의 복원에 대해 정작 한국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참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였기 때문에 마음이 끌려,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일본인들의 비석이 즐비했어요. 마치 일본인 사적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채 중앙에 엔닌이 모셔져 있고 장보고 대사의 영정은 한 구석에 객인처럼 라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고 한국이고를 떠나서, 이것은 새로운 역사왜곡을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 수천 년이 흐르면 이곳은 또 완전히 일본의 사적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었지만 이제라도 법화원을 새롭게 복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지요. “복원된 현 위치가 당시의 법화원 터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그러자 그들이 답하기를 “천 년 이상 법화원 적산촌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내용을 토대로 사방 수 킬로미터에 걸쳐서 발굴 작업을 벌인 결과 현 복원된 위치에서 당나라 시대 기왓장이 집중적으로 발굴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복원되어 있는 법화원은 어쩔 수 없다 치고 tap이라도 하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갈 때 경제문화교류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갔고, 무궁화 60주를 가지고 갔기에 법화원 주위에 심고 왔지요. 지금도 그 꽃이 피어요.

그리고 법회원 경내에 조그마한 탑을 세우기로 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기공식을 가진 후 준비해간 조각한 나무막대기를 법회원 안에 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은 산속에 묻혀 있어 밖에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일본인들이 복원한 법회원 안에 조그만 탑하나 세웠다고 해서 그다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가서 법회원 안이 아니라 밖에 세우겠다고 했죠. 그러자 밖에 세우려면 땅을 사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은 산이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 과수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미: 비용도 대단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최: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1,170여 년 전 진정한 세계인이었던 장보고의 역사적 복권은 곧 우리 민족의 역사적 복권이며, 장보고의 기개와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장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좀 더 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나 할까요.

미: 좀 더 큰 것이라면?

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지요. 재정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적인 일이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된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보고기념탑 건립이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불과한 것이라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걸리는 게 없었죠. 이제 새로운 동북아 시대가 왔고 동북아를 주도하던 장보고의 현대적 재현이야말로 우리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더 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국내에 돌아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한 식자층에서도 장보고라고 하니깐 해적이 아니냐고 그래요. 해적을 소탕한 사람을 말이지요. 또 당시 문화부에서도 일개 대사를

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여기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배를 타고 오가면서 일을 진행시켰어요.

중국측에서도 선뜻 응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과 중국의 우호선린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긴 하지만, 남의 나라 조상의 위적을 기념하는 기념탑 건립에 무엇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시로부터 보다 큰 행정구역인 위해시에 이르기까지 민간차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당시, 시장은 물론이고, 실무책임자와 적산촌민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면서 협조를 구했어요. 당시 위해시 여유국(旅遊局) 부국장은 중국인이었음에도 장보고기념탑 건립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현지에서의 저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켰지요. 잊지 못할 분입니다.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현지에서 지적도를 가져와 제가 아는 교수에게 설계를 맡겼지요. 설계도면이 나온 이후 정부관계자와 기업인, 해운업계 등을 돌며 참으로 많은 작업을 했지요.



◀ 장보고 탑 전경

미: 설계도까지 만들어 국내에서 다녔어도 안 되었군요. 힘들었겠습니다.

최: 예. 그 과정은 말할 수도 없지요, 배타고 중국에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에요. 장보고기념탑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약정서, 비준증서, 담보서, 인민정부허가서 등의 문건을 영성시와 위해시정부에 요청하여 받아가지고 돌아오곤 했죠. 하도 문건을 요구하니 나중에는 짜증을 내기까지 하더군요. 후원과 관련하여 기업 이사회에서 회의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받은 문건과 사진을 첨부하여 장보고 서류철 수십 권을 만들어 전달하곤 했죠. 그런데도 될 듯하더니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중국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법화원 바로 옆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하기도 쉽고 공사도 순조롭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극구 바로 옆에는 안 되고, 황해에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볼 수 있도록 산 정상에 세워야겠다고 했죠.

미: 좀 크게 세우려고 그러셨군요.

최: 크기도 크기지만 적절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곳 산들이 예쁘게 연꽃모양으로 첩첩이 많아요. 낮은 산, 조금 더 높은 산, 그리고 더 높은 산... 그런데 한 지점에 이르러 잡초들이 한 길 넘게 자라고 큰 바위들이 맞물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나타났는데 들어가서 터를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가져오게 하여 장정들로 하여금 앞에서 잡초를 치게 하면서 그 바위들을 올라서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간 들어가니까 황해가 환하게 내려다보이는 확 트인 전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법화원이 내려다보이고,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곳에 기념탑을 세우려면 새로이 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난공사에다가 엄청난 공사비용이 드는데 아직까지 돈 한 푼도 안내고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그래요. 또 중국 영성시에 뭐가 득이 되냐는 거지요.

단순히 한 건 하자고 그렇게 3년여에 걸쳐 고생을 하면서 배를 타고 왔다갔다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도 뭔가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는데 고집 부린다는 것입니다. 법화원 옆에다 세우면 공사도 쉽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관리도 쉬워 좋을 텐데 왜 그러냐는 거지요. 우선 산 중턱까지 도로를 뚫어야 하는 거며, 기념탑을 세운 후 시설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득을 하여 천신만고 끝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국내로 돌아와 확인 차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가니까 기다리시오!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딱 끊고 바로 갔어요. 진짜 배를 타고 훌쩍 도착했지요. 그랬더니 크게 놀라더군요. 그렇다고 다시 올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이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이라는 것이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중국쪽의 확답을 받아놓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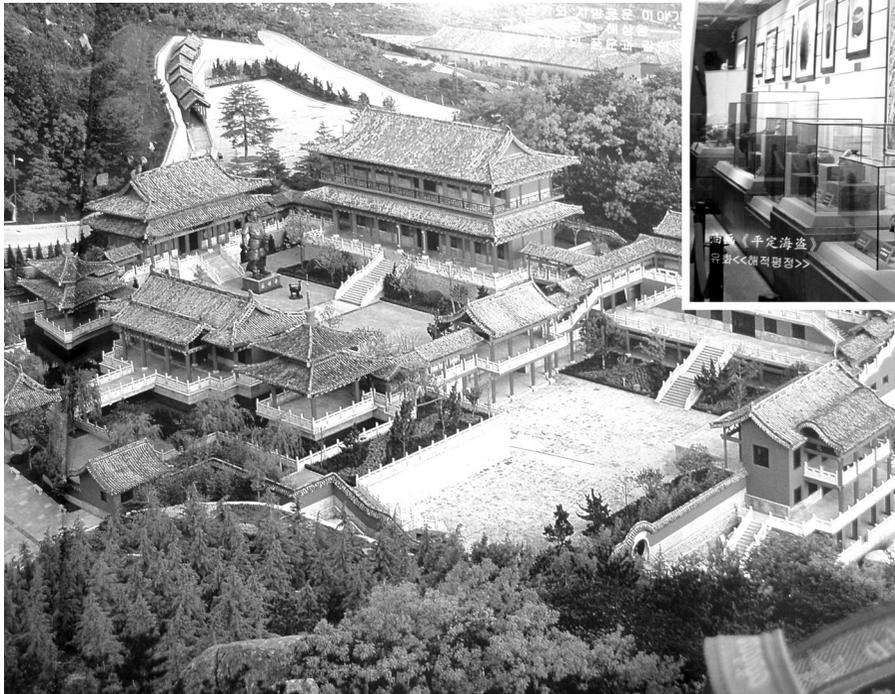
그러나 그때까지도 국내에서는 한 푼도 거출이 안 되었어요. 거출은커녕 비난만 실컷 받았습시다. 무슨 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학 교수가 무슨 탑 세운다고 그러느냐, 왜 역사에 그리 관심이 많으냐는 거예요. 역사에 기 하지 않은 일체의 학문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맞섰지요. 심지어는 그 일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누가 협조하겠느냐고...

한 번은 중국 가는 배를 탔는데 자정 무렵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했어요. 워낙 파도가 심해서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집체만한 파도에 더 이상 공해로 못나가니까 배가 돌아오려고 방향을 바꾸는 거였는데 파도가 덮치면서 마치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지요. 배안은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 일에 얼마나 몰입을 하고 고심을 했던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다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만약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냥 이 바다에서 끝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 단순히 사사로운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인천까지 돌아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출항을 했어요.

93년에 들어서서 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수차에 걸쳐 문건을 받아가고 장소까지 확정을 하고 설계도면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좀 시들해진 것입니다. 93년을 넘기면 이 일이 무산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혼자 결론을 내렸지요. 이대로 가면 어차피 무산된다. 이럴 바에는 시도를 해보고 끝내자는 마음으로 93년에 배를 타고 들어가 가능한 최종 착공일이 언제쯤 되느냐고 물었어요. 땅을 파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안 되니까요. 11월 초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3일에 착공하러 올 것이니 삽과 기타 등등을 준비하고 기공식 때 대략 어떤 사람들 참석하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본업과 관련하여 살아온 과정은 매우 계획적이고 논리적이며 무모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전개되는 큰 일들은 알 수 없는 내면의 강한 기운에 이끌려 전개되곤 했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착공일을 정한 것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걸 하늘에 맡기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 ▶ 정보 기념관과 내부
- ▼ 정보 기념관



그렇다고 그 이후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미: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최: 지금까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반성하고 완전히 손 떼고 옛날 명상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착공일을 얼마 앞두고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었지요.

미: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최: 한국 국산 잠수함 1호가 장보고함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선주협회를 다니며 참여 환기를 시켰지요. 그런데 선주협회 회장께서 이렇게 좋은 일에 왜 협조를 안 하는가, 나는 개인자격으로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서류에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를 다닌 거죠. 위동항운, 대한해운, 도선사협회 등 해운업체와 몇몇 기업의 후원 사인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일부 계약금을 모아 갔어요. 이 과정에서 헌신적인 한 기업인의 참여로 거출이 탄력을 받게 되었지요. 착공식 때는 한중 양측에서 모두 참석해 행사를 크게 하고, 공사를 끝내는 동안 다 거출이 되어 준공식 때 모두 지불했고, 참석자도 7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운항만청장이 국가대표로 참석을 하였고, 200여명을 태운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도 입항을 하여 참여했지요. 게다가 장보고기념탑은 현지 문물보호단위(문화재)로 지정되었답니다.

94년 7월 24일 준공이 되었는데, 95년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장보고 대사 해외거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대가 전국 중·고등학교 답사코스가 되면서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산동 척산수산그룹에서 영성시로부터 그 지역전체를 인수받아 대대적인 관광지로 개발했지요. 얼마 전에는 장보고기념탑 바로 옆에 장보고기념탑을 그 그룹에서 세웠습니다. 저도 개관식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해 놓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제게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장보고기념탑 건립 이후 그 일대가

관광지화되어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수백억 들여서 관광지로 개발을 했는데 아주 잘 해놓았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미: 95년에는 유엔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유엔세계평화센터(UNWPC) 건립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최: 네. 95년에는 중국측과 2차 조인식을 가졌고, 99년에는 중국, 러시아, 유엔과 그것을 발의한 제가 함께 4차 조인식을 마쳤지요.

이 푸른색 흐름이 두만강이에요(사진 참조). 쪽 이렇게 밑에까지 가서 동해로 이어지죠.

미: 네. 저기가 북쪽이군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최: 네.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세 나라가 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 4차 조인식 사진
▼ 두만강



중국에서 다 국가급 환경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3% 개발 97% 보존이란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21세기패러다임에 맞게, 기본적으로 생태 환경을 중시하죠.

미: 유엔세계평화센터에 대한 생각이 처음 떠오른 것은 언제였나요?

최: 90년대에 들어 중국을 자주 내왕하면서—산동지역뿐만 아니라 연길, 심양, 환인, 단둥 등 다른 많은 지역에도 가보게 됨—동북아의 요충지인 3국접경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21세기 환경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지구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5년 여름에 중국 연길을 거쳐 훈춘으로 갔지요. 그곳 시장을 만나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서 조언도 듣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달라고 말하고 왔지요. 그때가 95년 8월이었어요.

그렇게 중국에 갔다 와서 얼마 안 된 8월 하순경, 신문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스페드 총재가 유엔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었습니다. 9월 1일에 와서 기념강연을 하고 9월 2일에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강연장으로 가서 저지망을 뚫고 유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꼭 제안을 할 게 있다며 그 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회의가 있다며 가면서 내일 아침 호텔 신라 라운지로 와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여 다음날 아침 그곳으로 가서 보충 설명을 하던 중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고 해서 두만강 하류 3국 접경지역이라고 얘기했더니 탁견이라며 무릎을 치더라고요. 사실 90년대 초부터 UNDP 주관하에 두만강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국가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니까요.

미: UNDP 주관하에 이루어진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 TRADP는 두만강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UNDP 주관하의 다자간 개발협력사업입니다.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과 함께 그 계획관리위원회(PMC)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 있으며, 일본은 옵저버국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그 당시 두만강하구 일대는 도로도 뚫리지 않은 정말 오지였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의 요충지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지요.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군사기지로 잡은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길-청진-블라디보스토크(나중에 나훗카-보스토치니 지역으로 확장)의 대삼각과, 훈춘-나진·선봉-포시에트의 소삼각을 중심으로 공동개발이 시작되었지요. 제가 발의한 유엔세계평화센터 건립지역은 바로 이 대삼각과 소삼각의 핵심지역인 '황금의 삼각주' 일대이지요.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 지구촌 차원에서 환경생태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지구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거였어요. 떠나기까지 거의 세 시간 가량 내 설명을 경청하더니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UN명칭 사용에 동의하고는 UNDP 북경주재 대표, 평양주재 대표, 러시아주재 대표 등의 전화번호를 다 적어주었습니다. 또 한 달 남짓 후 10월에 연변포럼이 있으니 거기서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뉴욕에 송부를 해달라고 그래요.

미: 일이 긴박하게 진행이 된 거네요?

최: 네. 1박을 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의 발의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인데 떠나는 날까지 진지하게 들어주고 지지를 해주는 것을 보고 유엔 관계자들의 탁월한 통찰력과 안목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미: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엔 연변포럼에서 발표는 잘 되었나요?

최: 일이란 늘 틀어지나 봅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중국 길림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변포럼에서 발표하겠다고 북경에 있는 유엔측 관계자와 중국 길림성 관계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할 내용과 사인 받을 내용 등 서류 한 박스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나 방학, 이런 기간을 이용해 숨 가쁘게 다녔죠. 연길로 가서 유엔측 대표를 만나 서신을 보냈는데 왜 답신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이미 시간 안배가 끝나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중국측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국측에 갔더니 역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포럼은 시작되게 되었지요. 전세계에서 모인 투자포럼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안배가 다 끝나고 프로그램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학술회의인지 아느냐, 투자포럼이다, 돈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돈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유엔측에서 가서 발표하고 유엔본부에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유엔측에서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자연-인간-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사실이지 두만강하구 3국접경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지리학적으로, 또는 물류유통 상으로 동북아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 미래의 유엔본부가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UNDP 구역이자 국가급 환경보호구역인 두만강하구 일대는 경제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개념을 규제하는 보다 상위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환경개념이라고 했지요. 21세기가 환경문화의 세기이니만큼 그에 걸맞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런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금은 지구촌 차원에서 동원하면 되는 것이고, 일이 좋으면 자금은 자연히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도 결국 설득이 안 되었어요. 헛되이 돌아와야 될 판이었지요.

그런데 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장으로 거의 다 들어갔을 무렵 누가 스피커로 저를 찾는다고 해요.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하고 만나보니, 한 중국 사람이 거두절미하고 도와줄 일 없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급하니까

왜인지도 묻지 않고, “지금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할 시간을 안준다” 그랬죠. 그러자 그 사람이 서둘러 회의 본부 쪽으로 가서 여러 사무실에 들어가 알아보다가 한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들어오라 그래요. 시간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어서, 한 시간이면 되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미: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자기 갈비뼈가 부러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야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나온 이유는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도와주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만나고 싶으면 한국 가기 전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발표가 급하니 발표에 신경 썼지요. 나중에 그분 스승과의 만남을 따로 가졌는데, 그 인연은 길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발표가 무산되어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줄곧 발표할 발표문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발표문이니만큼 유관 관계자들과 그 직함에 대해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요. 친애하는 길림성 정부 누구, 친애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누구, 친애하는 유엔의 누구... 그것만 해도 한 페이지예요. 직함도 틀리고. 그래서 타이프 쳐가지고 붙이고 복사를 하고 있었지요. 발표를 할 시간도 연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붙이는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발표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데, 한편으로는 붙이면서 한편으로는 발표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그러다 된 것이지요.

미: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건가요?

최: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생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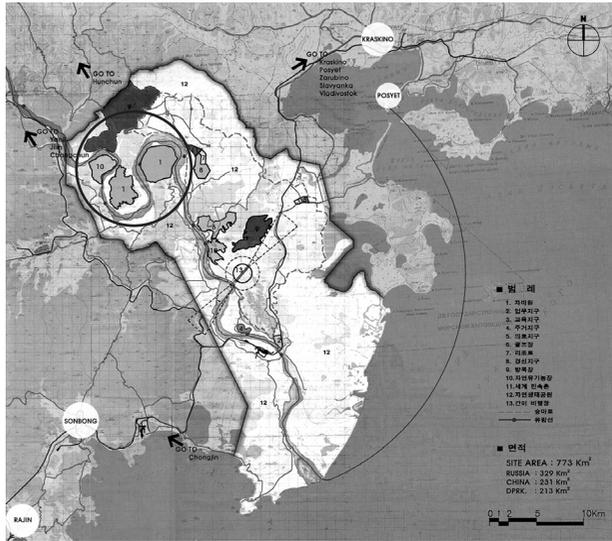
미: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최: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한 달 전에 안배가 끝났으니 발표할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제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알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 저희 대학에선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그 4-5일 안에 결판이 나와 되는 일이었지요. 그 4-5일간 연변포럼 개최지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발표문을 손질하고 발표할 시간과 부지를 얻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지요. 그러다가 천우신조로 일단 발표시간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엔세계평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지야 뭐 어렵도 없죠. 투자포럼인데 기업인도 아니고 교수가 와 가지고 좋은 일이니 땅 내놔라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 장보고기념탑을 건립한 일도 설명이 되었고, 동원 능력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설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커다란 사업은 실무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당서기를 만나 몇 시간 얘기를 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중문으로 모든 서류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분이 다 듣고 있더니, 마지막에 제 말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이 “사실은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최 교수 관상을 보니 허언(虛言)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러곤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실무자들이 이건 하라는 얘기라며 막 박수치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역시 중국은 대국이고 안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엔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은 이해 자체가 잘 안될뿐더러 대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했지요. 18년째 그것을 느낍니다. 이 일은 국내에서 추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중국측이나 러시아측, 유엔측에서 볼 때 저는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고 능력도 검증된 바 없는데도 제출한 서류와 제 설명을 듣고 감동을 하더라는 거죠. 무릎을 치는 겁니다. 유엔관계자들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이죠. 그네들은 객관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좋으면 지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서기와의 대화가 있는 바로 다음날 길림성 부성장, 연변 자치주장,



▲ 태극모양의 물길(지도 속 원안 참조)

훈춘시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중 양국 국기를 꽂고 이 평화센터에 대한 조인식을 했어요. 그때는 평화공원이라고 했는데, 땅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냐고 해서 한 1억평 정도로 하자고 해서 1억평에 대한 2차 조인식을 했지요.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시작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연변 TV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지요. 또한 기초기공식까지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그때 기공식을 한 곳이 바로 저기 태극으로 물이 도는 회룡(回龍)이라는 곳이에요.

두만강하구 3국접경지역은 육로, 항공, 철도, 배가 3국에 걸쳐 모두 통하는 사통팔달 지역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경제지리학적 요충지일뿐더러 환경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기도 하지요. 유라시아 특급 물류혁명의 전 기지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또 러시아 핫산은 TKR(한반도 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친선교를 거쳐 그 종착역인 핫산에 이르고 다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유럽으로 통하게 되지요. 가히 21세기 세계 중심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기에 90년대 부터 UNDP 주관하에 두만강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방천에서 영토가 끊겨져 동해로의 출로가 막혀 있고 그 아래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북한 땅이 동해에 이르기까지 마주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사되면 동해로의 출로가 생겨 좋은 거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된 게 1860년이예요.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을 주선한 대가로 할양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147년 밖에 안 되니까 영토상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원래 러시아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난번처럼 동북공정 얘기 나오면 러시아가 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공동개발 되면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한 극동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면 러시아에도, 북한에도, 또한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한반도 물류도 마찬가지로요. 그 지역이 열리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도 절감되면서 우리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그야말로 윈윈(win-win) 게임이죠.

불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1999년 4월 중국 훈춘 현지에서 유엔측 대표, 중국 훈춘시 인민정부 시장, 러시아 핫산구정부 행정장관과 함께 유엔세계평화센터 건립을 위한 4자 조인식 및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죠.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전체가 약 2억 평이 된 겁니다. 그 직후 전문가 고찰단과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을 넘나들며 현지 지질·지형조사를 하고,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실무대표자들과 함께 수차 회의를 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유엔세계평화센터 건립계획서와 전체 청사진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했지요. 이후 1차로 중국 경신을 선정, 40만평 지적도를 만들고 거기에 기본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평화센터 본부(세부설계도 및 조감도 완성), 유엔평화대학(유치 추진 예정), 테마파크(세계민속촌 포함), 평화의 광장, 예술관, 세계평화의료원 등이 있습니다. 평화센터는 유엔 평화대학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테마파크(세계민속촌 포함)는 각지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50여개국의 테마파크를 조성케 할 예정입니다. 평화의 광장은 세계 북축제, 세계현자대회 등의 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엄청난 규모의 설치비 및 관리유지비가 드는 기존의 시설물과는 달리, 자연 풀밭을 그대로 살린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며 설치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예술관은 뉴욕 하모니 오케스트라, 러시아 발레, 중국 경극 등과 같은 세계적인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교류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예술가, 뮤지션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판 아트 홀(Art Hall)을 건설하게 할 것입니다. 세계평화의료원은 미국, 일본 등지의 평화기금을 유치하여 원폭피해자, 백혈병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체의학연구소와 자연요법센터를 함께 설치하여 자연치유 방식에 대한 연구와 연구소가 제안하는 건강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자연요법 기능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기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컨셉을 준 평화센터 본부 조감도는 바로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지봉은 우주[天]를 상징하는 둥근 돔식[天·圓]으로, 건물 본체는 우주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8괘[地·方]로, 그리고 3개의 돔이 이루는 건물 정면은 사람과 우주만물(人物)을 상징하는 삼각형[人·角]으로 하여 천·지·인 삼재의 융화를 표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만물이 하나가 됨으로써 일체의 대립과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는 완전한 조화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3개의 돔과 3층은 우주만물을 나타내는 기본수 3을 표징하고 있지요. 로비에서 돔 지붕 끝까지 약 30미터 높이의 중앙이 뚫린 장중하고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동북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 UNWPC(유엔세계평화센터)

1층은 박물관으로 세계미술인협회를 통해 제2의 르네상스期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 조각품 등을 모아 전시할 예정이며, 2층은 사무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도서관, 강당 등으로 되어 있고, 3층은 회의실, 객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물론 일을 하면서 겪는 외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에 대한 내적 갈등은 없었습니까?

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개되는 일들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전 나서는 것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삶이 내 의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것이지요. 제 삶은 명상생활로 일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수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미: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최: 아주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며칠이든, 몇 달이든 움직이지 않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 생활이 맞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전개되는 상황이 자꾸 탄판으로 되니까, 어디까지 내가 수용을 해야 되고, 또 내 자유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일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자유의지와 필연의 문제가 제겐 단순히 이론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지요. 예컨대 꿈에서 한 선인이 나타나 제 미래를 암시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때론 문서의 형태로, 때론 말이나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꿈 때문에 갈등이 많았죠. 20대 때는 그러한 꿈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내 자유의지대로 사는 거지, 거기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30대로 접어들면서 내 자유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차 정리가 되기 시작했지요.

미: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최: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면 자유의지와 필연은 저절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근본지(根本智)로 돌아가면 더 이상은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주관과 객관은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요체가 바로 주체-객체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미: 그것이 천부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천부경은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최: 81자 천부경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이치로 그 구조를 분석한 책은 없었습니다. 81자가 모두 1부터 10까지 숫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다는 생각은 감히 못했어요. 제가 한학자도 아니고, 만약 문자로 풀 수 있는 수준 같았으면 조선시대 기라성 같은 한학자들이 이미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여 어떤 현인이 있어서 그 구조를 좀 밝혀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년에, 어쩌면 아주 만년에, 내 머리가 열리게 되면 풀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2005년에 들어 동학의 정치철학적 원형을 밝혀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원형은 천부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부경에 대해 연구는 안 했지만 짧은 논문 정도야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81자를 펴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81자의 구조를 생각하며 한 자 한 자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못한다고 스스로 단정했던 까닭에 그렇게 자세히는 보지 않았죠.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一始無始—一終無終—)만 보고 전체 의미를 짐작했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 얼마 만에요?

최: 81자를 들여다 본 지 며칠 만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명확한 이치가 그 구조 속에 드러난 겁니다.

미: 무슨 이치였습니까?

최: 우주의 이치죠. 그게 바로 생명의 3화음(triad)적 구조인 거예요. 천·지·인(天·地·人), 성부·성자·성신(聖父·聖子·聖神), 법신·화신·보신(

法身·化身·報身), 내유신령·외유기화·각지불이(內有神靈·外有氣化·各知不移)...

천(天)에서는 생명의 본체를, 지(地)에서는 그 작용을, 인(人)에서는 본체와 작용의 합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화음적 구조의 제목을 하늘의 이치를 나타낸 천리(天理), 땅의 운행을 나타낸 지전(地轉), 사람과 우주만물의 근본이 하나임을 나타낸 인물(人物)로 나타낸 것입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天二三, 地二三, 人二三)’은 ‘하늘에도 음양이 있고, 땅에도 음양이 있으며 사람에게도 음양이 있어 음양 양극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천지운행이 이루어지고 우주 만물이 생장,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경의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과도 그 뜻이 같은 것이지요. 음양으로 나뉘어져야 작용을 하거든요.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음양오행에서 만물이 나오니까요. 앞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天一 地一二 人一三)’은 ‘하나(一)’의 묘리(妙理)의 작용으로 천지가 열리고 인물이 생겨나는 무위(無爲)의 천지창조(天地創造) 과정을 일(一), 이(二), 삼(三)의 순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와 그 핵심이 같은 거예요. 즉 천개어자(天關於子: 자회에서 하늘이 열리고), 지벽어축(地關於丑: 축회에서 땅이 열리며), 인기어인(人起於寅: 인회에서 사람과 우주만물이 생겨남)이 바로 그것이지요. ‘천일 지일 인일’이 하늘과 땅과 우주만물 즉 생명의 본체를 나타낸 것이라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부터는 작용을 나타낸 거예요.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 천부경의 핵심인데, 이는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되어 천·지·인 삼신일체(三神一體)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감(歸一心源)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질료인 ‘하나(一)’를 셋으로 나누어 천·지·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미: 정신과 물질의 합일이라 보면 되는 거죠?

최: 네. 천부경의 구조는 본체-작용-본체와 작용의 합일, 정신-물질-정신과 물질의 합일, 보편성-특수성-보편성과 특수성의 합일, 말하자면 생명의 3화음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지요. 천부경이 단순히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진리의 모체가 되는 인류의 경전임은 바로 이 구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물리학을 알아야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천부경보다 자세하게 다룬 것이 이번에 새로 쓴 생태정치학입니다.

미: 내적인 체험 얘기를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가장 성숙해져있고, 익어져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해 주셨는데...

최: 10년 후면 사뭇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죠. 진행형이에요.

내적 체험은 저의 역할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보면 도인이다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게 되어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맞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또 틀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미: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적에너지원이 있다는 소리잖습니까? 동력이 없다면 안 되겠지요.

최: 말씀하시니까 얘기지만, 내적 체험의 과정이 없었으면 지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오히려 부정하고 내 자유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유유자적하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가라고 항상 생각해야하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었지요.

미: 천부경을 쓰신 게 2005년이죠. 그전까지는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거군요.

최: 네. 정말 혼신을 다하여 살았노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내 인생에 있어 밤을 지새운 날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이토록 혼신을 다하여 정신수련을 했더라면 벌써 어떤 단계에 올랐을텐데라는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면 갈등이 아주 격심했어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죽지 않을 질식을 계속하며 불타는 세월이 흘렀지요.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힘들어 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생각하고 움직였지요. 정부 관계자, 유엔 관계자, 기업인, 일반인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용도에 따라서 수만 장의 기안도 했지요. 갈등의 근원이 바로 속세의 삶과 정신수련을 이원화시키는 무명(無明)의 삶의 행태에 있음을 그때는 정녕 깨닫지 못했지요.

미: 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최: 네. 마치 어떤 향수병처럼 그게 강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세월이 가면 영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조합이 불쑥 찾아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천부경의 구조가 보이면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희열에 전율하기도 했습니다.

미: 그것이 하나라는 것이 보이면서 말입니까?

최: 그 이전에도 제가 이론적으로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도 쓰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말뿐이었지 체득을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천부경은 거의 명상상태에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책상에 앉으면 어느새 밤이 되곤 했으니까요.

미: 내적 메시지가 들어온 거군요.

최: 메시지라고 하면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흔히 신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누구에게나 내재적 본성인 신성, 즉 참본성이 있잖아요. 그 순간 참본성이 열린 거죠. 일원(一元, 宇宙曆 1년)인 12만 9천 6백 년을 주기로 천지개벽의 도수(度數)에 따라 우주가 봄·여름·가을·겨울의 '개벽'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순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태양계는 은하세계를 2억 2천만 년 주기로 회전하며 은하세계는 은하단을 향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천체의 순환, 그리고 천시(天時)와 지리(地理)에 조응하는 생명체의 순환과 카르마(karma, 業)의 작용이 불러일으키는 의식계의 순환에 대해 명상을 했지요. 왜냐하면 그건 책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점차 주위가 뚜렷이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81자의 구조가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부경의 구조와 그 요점을 1주일 만에 모두 정리를 했어요. 2005년 9월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2006년 1월까지 정확하게 5개월 만에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의 본문을 완성했습니다.

미: 핵심은 1주일 만에 끝난 것이고, 다듬어서 5개월 만에 끝난 거군요.

최: 네. 출판사에 본문만 넘겨주고, 중국 연변대학에 객좌교수로 가 있으면서 색인, 참고문헌, 서문, 교정 등 후속작업을 했죠. 거의 한 달 동안 후속작업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렇게 해서 2005년 5월에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생태정치학 집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와중에도 평화센터 일은 계속되었고, 특강, 논문, 학회일 등으로 분주한 나날이었지요. 하루 17시간 이상 워드작업을 하곤 했지요. 쓰는 대로 한국 출판사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금년 3월에 출판이 된 거죠.

미: 그러면 진정한 이해는 체득이네요?

최: 그렇습니다.

미: 체득하지 않고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이해라고 할 수 없지요.

최: 저는 30대부터 줄곧 자유의지와 필연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 제시 및 논리적인 설명과 더불어 강의도 했는데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은 참이해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경 이후로는 점차 그런 갈등이 사라지더군요.

미: 일하는 게 결국은 내적인 명상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군요.

최: 네. 차이가 없어요. 제가 세상일을 한 게 18년째인데, 마치 심산수도를 한 승려가 두타행(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려 심신을 닦는 것)을 하듯이, 18년간 두타행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러한 행선(行禪)의 과정 없이 좌선만 했더라면 세상의 번뇌가 깨달음을 싹트게 하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참으로 대해(大海)의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귀한 보물을 얻을 수 없듯이, 번뇌의 대해에 들지 않으면 일체를 관통하는 영적(靈的)인 지혜의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동안 결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계속 좌선을 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명상을 해온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미: 큰 수련을 하신 거네요.

최: 네. 세속의 삶과 정신수련을 이원화시키는 그 마음이 작용하는 한 삶의 도는 체득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지난 18년간 심산에서 계속 명상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겠네요.

최: 그렇죠. 결국은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을 통해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전체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나 개인에게도 의식의 확장을 가져왔으니까요. 전체에게 이로운 것은 반드시 개인에게도 이로운 거예요.

미: 천부경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최: 네. 전체의식과 부분의식이 결국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손해 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치를 모르면 평생을 낭비하는 거지요. 뭐가 진정한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지 모르니까요.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던 세상일이 진정한 수행이었음을 안 것입니다. 때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일을 하다보면 약속이행도 잘 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식계와 존재계가 하나이니 마음공부와 세상공부가 따로일 수가 없고 내 마음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세상공부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천부경을 집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아무튼 천부경 집필은 제 의식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요.

미: 삼일신고 일심(一心) 편을 보면 본성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글도 있더군요. 자유의지와 필연의 조화를 체득한 것과 본성의 자각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 참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곧 자유의지와 필연의 조화를 체득하는 것이죠.

미: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최: 참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본성인 신성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종교에서 말하는 하늘, 하느님, 혹은 도, 태극, 브라흐마,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 우주의 근본 질료, 우주의 실체는 의식이니까 그건 우주의식, 순수의식, 근원의식, 전체의식, 보편의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 전체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심이죠. 일심의 원천으로 돌아가면 자유의지와 필연의 조화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미: 생태정치학에 나온 것을 잠깐 보면 '이 우주가 자기생성적 네트워크라는 관점이 동양사상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 자기생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을 말합니다. 하나인 우주의 근본 질료에서 우주만물이 나오니까 자기생성적이죠. 말하자면 우주만물은 하나의 자기복제(self-replication)인 셈이죠. 누가 누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객체 이분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유일신은 우주만물을 떠난 그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의 중심에 내려와 있는 참본성을 일컫는 것이지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이 실재하는 생명의 본체 말입니다. 유일신은 없는 곳이 없으니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무시무중이고, 불생불멸이고...

미: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체득을 통해 알고 나서의 차이점은 뭔가요?

최: 생명의 본체가 보다 명료하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인 생명의 본체는 분리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 유일의 하나인 까닭에 유일신이라 명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일신의 실체를 직시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유일신이 곧 우리 자신이며 우주만물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미: 천부경에 쓰신 것을 보면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씨앗인 하나님을 양(養)해야 참본성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주시지요.

최: 누구에게나 다 참본성은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질료인 하나인 혼원일기(混元一氣)가 스스로 자기복제를 해서 우주만물이 된 거니까요. 그 참본성은 우주만물의 중심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과 범인의 차이는 성인은 그것을 길러서 충분히 제대로 개화가 된 경우라면, 범인은 여전히 먹구름에 가려있는 것이죠. 먹구름은 푸른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버리면 그뿐이거든요. 우리의 참본성이 열리면 먹구름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미: 그런데 왜 성인과 범인 사이에 차이가 있고, 어떤 이는 열리고, 어떤 이는 안 열리는 걸까요?

최: 혜근(慧根)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카르마(karma, 業)를 얘기해야 되겠지요. 예컨대 오늘 두 사람이 만나 아침부터 똑같이 책을 봤는데 한 사람은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좀 얕게 이해를 한다면 왜 그럴까요? 어제까지 학습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생명도 순환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윤회라하면 단순히 불교사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물질계의 관점에서 보면 오고 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심축에서 보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니 윤회란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축이니까 돌지를 잼아요. 하지만 주변은 분명히 돌고 있고 따라서 윤회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본체계[의식계]의 관점에서는 윤회가 없지만, 현상계[물질계]의 관점에서는 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라는 이 낡아지게 되면 새로운 육체의 으로 바뀌 입으니까요. 허나 참본성의 견지에서는 윤회란 없는 거죠. 참본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진여(眞如) 그 자체니까요.

미: 이제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내적 갈등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최: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붓다의 경지에 이르면 일체 갈등이 종식되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갈등이 없을 수야 없겠지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게 마련이고, 성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미세한 파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닷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중국에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무수한 단계가 있으니 근본지(根本智)를 체득한 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이지요.

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거지 거기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냐는 겁니다.

최: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용을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고요해지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곧 마음의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 문제라는 게... 그건 외적인 것 아닙니까?

최: 물질적 차원에서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구분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계와 존재계[물질계]는 분리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 그러면 밖에 문제가 있는 한은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도 의식의 작용이니, 오히려 의식의 작용이 그치지 않는 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지요.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을 테니까요.

미: 그렇다면 보통은 완전한 해결이란 게 없는 겁니까? 반대로 완전한 붓다는 외부적인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까?

최: 완전한 적정(寂靜)의 경지에서는 그 어떤 파도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미: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흙탕물이 있는데 이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가라앉습니다. 흙과 물이 따로죠? 이걸 흔들면 다시 흙탕물이잖아요. 보통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흙이 가라앉은 상태를 말하는 듯한데, 정말 본성을 본 사람이라면 이걸 아무리 흔들어도 물은 물이고 흙은 흙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좋은 비유네요.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분화된 것이거든요. 흙과 물이 둘이 아니니까 흔들어도 여전히 그건 따로 있으나 섞여 있으나 하나라는 거죠. 염정제법(染淨諸法: 더러움과 깨끗한 모든 것)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고요함과 움직임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좌선과 행선이 하나임을 체득하게 되겠지요.

미: 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전히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최: 이전보다는 경미하게 반응하는 편이죠.

미: 파도가 작게 일어난다는 거군요. 이제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까?

최: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현재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 의식의 진화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잘된다 못된다는 것도 물질적인 관점이지요.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그러한 상황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확실하거든요.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간파하여 그에 대처하는 것이 의식의 진화를 이루는 첩경이지요.

미: 지금까지는 갈등에 쏟아지던 에너지가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찾는데 더 쏟아진다는 것이죠?

최: 네.

미: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이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여기’를 보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차원으로 상당히 깊이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대과학과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 최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최: 이것은 결코 제 개인의 일도 아니고, 21C 새로운 시대에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일이지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알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이 흐름에 맞게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최민자(崔珉子) | 1984. 3-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 3.1-2007. 2. 28 중국

연변대학교 빙교수[客座教授]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정치학 석사, 영국 켄트대학교(University of Kent) 정치학 박사, 중국 북경대학교 visiting professo, 중국 연변대학교 빙교수[客座教授], 1992-現 사단법인 우리연합 이사장, 1995-現 유엔세계평화센터건립위원회 위원장, 1992-現 중국심양세종조선어학교 명예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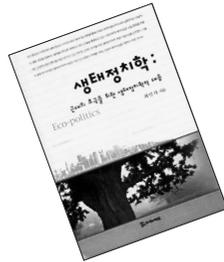
◇상훈-대통령 표창(1994.12)

◇저서-『生態政治學: 近代의 超克을 위한 生態政治學的 對應』(서울: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天符經·三一神誥·參佞戒經』(서울: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6) 외 다수.

생태정치학—그대의 극을 위한 생태정치학적 대응

최민자 저_모시는사람들_35,000원

이 책은 생명 현상이 개별 유기체의 속성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의 속성임을 동양의 천부사상, 힌두사상, 유·불·도, 동학사상과 현대 과학의 접합을 통해 밝힘으로써 서구 중심의 생태 이론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생태정치학'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최민자 주해_모시는사람들_45,000원

한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정치한 학문적 기준과 영적 체험을 기반으로 주해한 책. 그동안 '국학' 또는 '재야사학'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졌던 이들 경전이 강단학자의 주해를 통해 새롭게 접근으로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자 교수는 이번 주해서에서 천부경이 전 세계 종교와 사상의 원류라 할 만한 진경임을 밝혀내었다.



구입문의: 02-747-2262